

발레로 만나는 호법신장

포교 무용극 '사천왕'

30·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손재현 무용단 두번째 작품

서양의 대표적인 무용인 발레를 방편으로 동양 사상의 정수인 불교의 세계로 인도하는 독특한 창작 포교 무용극 '사천왕'이 30일과 3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손재현 교수가 이끄는 손재현 무용단이 준비한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지난 1999년 에밀레종에 열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넋의 소리'에 이은 손교수의 두 번째 포교 무용 작품이다.

손교수는 "불교의 호법신장인 사천왕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사찰의 입구에서 혹은 그림을 통해 접해본 가장 대중적이고 독창적인 캐릭터로서 작품의 소재로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었다"면서 "외관상의 모습 때문에 무서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천왕의 이미지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천왕의 의미와 역할을 이번 무용극에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석불을 조각하며 '달래'와

의 사랑을 키워가는 '일심'과 옛사랑인 '달래'를 되찾기 위해 집부심에 사로잡힌 농부 '솔봉'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어리석음과 욕망, 탐욕으로 얻은 결과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옥천·공목천·증장천·다문천의 사천왕은 순간 순간 나타나 이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통 발레의 기본 위에 사천왕과 주인공들의 내면이 얼굴표정과 아르바틱적인 몸놀림의 현대적 창작무로 표현된다.

대본은 동국대 예술대학장 김홍우 교수가 맡았는데 연극학과 신영섭 교수가 연출을, 이동훈교수가 조명과 무대를 맡는 등 조계종립 동국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참여했다는 점도 이번 포교 무용극 '사천왕'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 무용극은 공연시작 30분 전부터 극장 로비를 천왕문으로 삼아 사천왕 분장을 한 공연자가 서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극의 시작과 함께 사천왕이 관객들을 유도하는 등 여느 공연과는 색다른 이벤트적 요소도 가미하게 된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공연 내내 석불이 서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극장 그대로가 불국토로 잠입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손교수의 계획이다. ☎22260-3420

이은자 기자 eel@buddhista.com



이만희 작-강영걸 연출

'피고지고 피고지고' 27일까지 국립극장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 수편의 연극을 함께하며 연극계의 명콤비로 이름난 극작가 이만희씨와 연출가 강영걸씨가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의 2001년도 버전을 27일

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인생의 패잔병들인 세 명의 늙은 도둑범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 연극은 앞서의 공연에서 삭제됐던 부분을 살리는 등 작품의 원형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마다 도박, 사기, 절도, 밀수 등으로 절뚝한 인생을 살아온 세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신라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돈황의 절터를 찾아 도굴에 나선다. 오로지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의 프로젝트명은 공모롭게도 신라 고승 혜초스님의 순례기 <왕도 천축국전>에서 따온 '신왕오천축국전'이다. 보물을 찾으려는 세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욕망의 깊은 뿌리를 기다림의 미학으로 풀어내면서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일깨워준다.

93년 초연 때부터 각각 왕오, 춘죽, 국전 역을 맡았던 이문수52세, 김재건54세, 오영수씨57세가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불빛으로 인생 패잔병인 세 노인들의 덧없는 꿈을 연기한다. ☎22274-3507

▷포교 무용극 '사천왕'은 정통발레의 기본 위에 사천왕과 주인공들의 내면이 얼굴표정과 아르바틱인 몸놀림의 현대적 창작무로 표현된다.



▷부처님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상계속티. 양 옆의 당간지주'는 부처님이 계시던 자리임을 나타낸다.

부처님 고행 현장 '렌즈에 담았다'

포영스님 '카일라스 사진전'
불일미술관 6월 4일까지

부처님의 6년 고행현장을 렌즈에 담은 '포영스님의 카일라스 사진전'이 22일~6월 4일까지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히말라야 산맥 너머 티베트 고원의 서남부에 우뚝 솟은 카일라스산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했던 신비의 설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티베트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수행자 파르마삼바바와 미라라베도 이곳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전한다. 포영스님은 10여년동안 오지 중의 오지인 카일라스 산을 오르내리며, 그 옛날 수행자들의 체취가 배인 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한 자리, 부처님의 발자국이라 전해 오는 임석의 흔적, 티베트 고원의 정경, 성스러운 자비의 호수 마광음초와 카일라스산의 정상 등을 영상언어로 보여준다. ☎2733-5591

추사학과 빼어난 솜씨 '구경'

간송미술관 27일까지
'추사와 그 학파전'

27일까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열리는 '추사와 그 학파전'은 위대한 예술가이자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와 그 제자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 19세기 조선의 새롭고 일군 지식인들의 예술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고 있다.

형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전통화법에서 대담하게 탈피해 파격적으로 그 본질을 표현하려는 절제된 회화 정신을 추구했던 추사의 회화운동은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꽃피워 온 진경종속화풍에 대한 도전이었다. 추사가 평생 벗을 삼았던 이재권존인, 대화를 사랑했던 우봉조희봉, 화풍이 간결 담백했던 북산 김수철, 초상화를 잘 그렸던 화원 이한철, 청초문인화풍과 전통적인 조선고유화풍을 더 붙여 갖춘 해산 유숙, 나이 삼십이 넘어 추사학 사랑에 머물며



▷해산 유숙의 '오수삼매(作睡三才)'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초치허유, 추사가 가장 아꼈던 제자로 스물아홉에 요절한 고암전기 등 20여 추사학파의 작품 12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간송미술관이 71년 가을 첫 전시 이후, 60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기획전 '추사와 학파' 전에서는 그림이 곧 글씨이고, 글씨가 곧 그림이 되는 경지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2762-0442

이은자 기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단순 소박한 천불(千佛) 천탑(千塔)을 운주사 계곡에 배치함으로써 '산은 산, 물은 물'의 경지에 다다른 그 디자이너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무표정한 표정'을 지닌 돌미륵을 통해 물질계의 정신계를 아우르는 무심(無心)의 지극한 성스러움을 드러낼 줄 알았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선과 형태로 그렇게 천진무구한 자화상을 표현했던 그들은 누구였는가? 돌덩이 속에 숨어있던 불성(佛性)을 발견하고 나머지 부분을 툭툭 깎아낼 줄 알았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불성을 연마하여 죽기 며칠 전이야 겨우 불은사(板動)의 수수하고 활짝(曲轉)한 등심체(龍心體) 글씨를 구사할 수 있었던 추사(秋史)의 지고한 예술적 경지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그들은 누구였는가?

민중의 삶에 뿌리를 내린 운주사의 천불 천탑이야말로 민중예술의 제의적(祭儀的) 성격과 형식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룩한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다. 일반 미술사학자들이 '꽃님이 돌부처'요 '동냥치 거저탑'이라고 폄하하여 부를 때, 그것들이 실은 가장 잘생기고 성스러운 미륵부처님'이거, '가장

원숙한 기교가 발휘된 명작 석물(石物)인 점을 밝혀낸 것이다. 그 점을 누구보다 깊이 '보아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합부르크 미술대학의 요한 힐트만 교수이다. 그는 1986년 전남대학교 미술

예술적 경지 익으면 익을수록 단순해진다

대학에 교환교수로 왔다가 화순의 천불천탑을 보고 깊이 매료되어 연구한 결과, (미륵-한국의 성스러운 돌물)이란 책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펴냈다.

앞서 추사의 경우에서처럼, 예술적 경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단순해진다. 그 단순함 속에 대교악(大巧若拙)의 미학적 힘이 분출되는 것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선(禪)풍의 패션이나 인테리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운주사 계곡을 살펴본 그 디자이너도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었을 게다. 불립문자란 '문자가 소용없다'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다 터득해버려 이제 더 이상 문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아름다움'이란 문제의식에 사로잡힌 예술가는 그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음이 성숙해진다. 성숙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은 단순미에 끌리게 마련이다. 그 마음은 그대로 손끝을 통해 대상에 묻어간다. '인생'은 문제의식, 즉 회두를 가져야 성숙해진다. 문제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문제 많은 인생이다. 문제에 몰두하여 마음이 익으면, 어느 순간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때가 온다. 성숙해진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인격이 성숙해갈 때 저절로 풀리게 된다.

구상(具象-무엇한 형상이 길어지면 추상(抽象-상이 지워짐)이 되고, 의미(의)가 길어지면 소리(聲)에 이른다. 운주사의 돌미륵 앞에 서면, 당국의 한을 시심(詩心)으로 승화시켜 예토(豫土)에 용화세계를 건설한 어느 순수한 인격체들과 마주선 듯한 느낌이 든다. 생명력과 사랑이 넘치는 용화세계가 예 밟고 또 어디에 있을까?

불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